

Exomind

프랑스의 예술가 피에르 위그는 Exomind 를 통해 인간이 만든 세계와 자연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매우 추상적인 극미(極微) 우주를 정원의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생물과 무생물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희귀한 유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꿀벌의 살아 있는 군체는 신사 경내에 있는 유명한 매화나무 ‘도비우메’의 유전을 계승할 꽃에 수분합니다. 일생을 올챙이를 닮은 아가미를 사용해 살아가는 아호로틀(멕시코산 도롱뇽) 한 쌍이 연못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벌집을 머리에 뒤집어쓴 여성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울러 위그가 만든 생태계는 수련(프랑스 지베르니에 있는 클로드 모네의 연못에서 교배한 것), 곤충, 삼색 고양이, 오렌지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